

# OptiNews

The Weekly

2007. 4. 2 vol.231

봄철 멋쟁이, 뿔테 안경으로 완성  
**'수수료는 더 나은 안경 서비스 보장'**  
폭발하는 아프리카 뮤지컬 우모자  
가오송, 소망 매단 등불의 상그릴라

미디어 옵티뉴스 · 한경비즈니스



명동안과

# “ISO 9001 인증 받은 최고의 안과수술전문 병원”

**명** 동안과(공동원장 김재호 송기영 노 제현)는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는 처음으로 품질경영 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9001 인증을 받는 안과질환 전문병원이다.

무엇보다 인공수정체 분야의 대가인 김재호 박사를 초빙하면서 라식과 백내장 수술의 노하우가 원원으로 작용해 안과 수술의 최고 병원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해 4월 명동의 명소인 하이해리엇 빌딩 8층으로 확장, 이전하면서 한층 질 높은 진료 환경과 기자재 구비로 환자들이 물리고 있는 이곳은 안과 최고의인 김 박사가 각막이식과 백내장 수술은 맡으면서 환자들에게 인정받는 병원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다.

지난 2005년 5월 인제대 서울백병원

안과센터 원장으로 교수직 39년을 마감하고 명동안과 공동원장으로 온 김 박사는 송기영 원장, 노제현 원장과 함께 호흡하며 환자들의 빠른 안과 질환 완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 박사는 강남성모병원 안과와 서울백병원 안과 교수, 원장으로 근무할 때는 한나절에 10여 건의 수술을 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시술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라식수술센터로 널리 알려져 있는 명동안과는 김 박사가 합류하면서 각막이식과 백내장 각막소절개수술 등에 있어 위상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박사는 “1980년대 이후에 인공각막이식술과 1982년의 근시 교정을 위한 방사상각막절개술의 보급과 1990년대 엑시머레이저, 라식, 현재의 근시, 난시교정술 분야에서 한국 최초의 안과 교수

로서 공헌한 것에 대해 안과의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건강이 허락되는 한 그간 쌓아온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송 원장과 함께 명동안과가 최고의 안과수술전문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자랑스러운 가톨릭 의대인 김재호 박사**

국내 안과계를 이끌어 왔던 김재호 박사는 ‘제5회 자랑스러운 가톨릭의대인’에 선정됐다. 국내 최초로 ‘카나도형 인공각막 이식술’을 성공시키는 등 과거 40여 년 동안 10만 건 이상의 백내장 수술과 2000건 이상의 각막이식술, 5000건 이상의 라식 수술을 시행하며 모교의 위상을 높여왔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김 박사가 개발한 고도근시에 관한 새로운 라식 수술인 각막편 라식도



지난 2005년 세계가 공인한 미국의 국제 권위지에 게재돼 노익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박사는 “라식 수술에서 잔존 각막이 250에서 300미크론 이하일 때 흔히 각막이 얇아져 돌출 현상이 나타나면서 고도근시가 다시 진행되는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라식 수술을 권해야 했다”며 “하지만 각막편 라식은 이런 환자들에게 엑시머레이저에 의한 각막절삭을 각막실질부에 안전한 정도만큼 시행하고 나머지 근시안의 추가 절삭을 각막편 뒤편에 동시 시행함으로써 합병증 없이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대안수술법”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태어나도 안과 의사가 될 것”이라는 김 박사는 “아직도 손이 떨리지 않아 미세소절개 백내장수술, 각막이식 수술을 직접 집도하고 있는데 많은 환자들이 찾고 있어 의사로서도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 사회에 기여하는 명동안과

명동안과는 1990년대 들어 근시교정수술이 붐을 이루면서 송기영 원장이 명동안과를 인수,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력 교정 수술의 선구자로 불리고 있는 송 원장은 1988년 일본 도쿄대에 연구원으로 있을 때 레이저 수술이 획기적인 것으로 인식해 적십자 병원 근무시절 과감하게 한국에 들어오는데 성공, 국내 처음으로 병원급에서 엑시머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을 시작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송 원장은 병원을 개원하면서 원시 교정 홀미움레이저 수술과 원시 근시 교정 케라토미리우스 수술, 라식 수술, 라섹 수술, 웨이브 프러트 수술, 마이크로 라식 수술 등 국내 어떤 안과 의사보다 먼저 개척하는 정신으로 꾸준히 연구해 임상에 적용해 왔다.

송 원장은 “보통 라식 수술은 수술 다음 날부터 최대 교정시력의 80~95%까지 회복이 가능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다”



명동안과 송기영, 김재호, 노재현 명동안과원장부부



명동안과 원장부 스태프

며 “2~3개월 정도면 최종적으로 시력이 안정되며 수술 과정 또한 간단해 수술 시 통증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명동안과는 안과가 없는 무의촌과 수술비용이 없는 저소득층에도 관심을 갖고 매년 여름방학 때 서울남산라이온스가 주최하는 무료개안수술에 참여하는 등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도 끊임없이 해오는 등 병원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도 전라도 순창에서 외래 1400명, 백내장 103명을 수술해줬고 인천 강화에서 외래 1700명, 수술 130명을 비롯해서 서울지역 노인복지관 등에도 직접 찾아가 무료 진료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송 원장은 “젊은 제자들과의 골프에서 비슷한 거리를 날릴 정도의 김재호 박사님과 젊은 노재현 원장과 함께 명동안과의원

을 명동안과병원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싶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의료 혜택이 미약한 주민을 위해 명동안과의 이동 진료 봉사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최고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명동안과가 국내 최고의 안과병원으로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힘이 되는 병원이 되길 기대해 본다. ❶

#### 김영삼 기자

##### 김재호 원장 프로필

- >1957년 서울대 사범대 생물학과 졸업
- >60년 가톨릭의대 졸업
- >66년 의학박사
- >70~71년 미국 보건성 연구원
- 존스홉킨스대 필라 안과연구소에서 각막연구
- >86~88년 가톨릭 의대 강남성모병원장
- >94~99년 가톨릭 의대 대학원장
- 99~02년 강남성모병원 안·이센터 소장
- >94~현재 선신안과연구재단 이사장
- >2002~05년 인제대 서울백병원 21세기안과병원장
- >2005년 5월 명동안과원장 취임